

# 하나님께 대학이 중요한 이유: 신실한 학문과 기독교 고등교육

Why college matters to God?

- Faithful Learning and Christian Higher Education

📍 강연: 릭 오스트랜드 (코니스톤 대학 학생)

이번 한동-코니스톤 특별 세미나의 전체 주제는 릭 오스트랜드 교수의 책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대학이 중요한 이유: 신실한 학문과 기독교 고등교육(Why college matters to God? - Faithful Learning and Christian Higher Education)”으로 잡았다.

오스트랜드 교수는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대학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미시간의 사진을 보여주며 간단히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대학 생활에서의 이원론적 사고 방식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채플, 성경 공부, 단기 선교 등은 거룩하고, 강의, 공부, 전공, 직업 준비 등을 세속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설명하며 무디 성경학교에서 확고하게 세운 신앙과 미시간대에서 받은 세속적인 요소들을 노트르담대학 박사 과정 중 통합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 대학에서는 이 모든 영역들이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질적 Intrinsic’ 가치와 ‘도구적 Instrumental’ 가치**

다음으로 그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Intrinsic(본질적)” 가치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모델에 따라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히브리어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통찰하고 다스림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본받아 피조계를 다스리는 학문과 신앙을 통합한 행위라는 것이다.

더불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일상다반사를 경험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원론에 빠지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문화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며 에덴동산을 잘 돌보고 밭 전시키라는 말씀을 언급하며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은 하나의 정원이었지만 계속 발전하여 요원계시록에 서는 하나의 도시로(from garden to city)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창조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독교 교육도 이 문화명령의 맥락에서 그 본질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독교 교육의 “Instrumental(도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기독교 교육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에이전트, 매개체라는 것이다. 가령 한동대의 슬로건인 “Why not change the world?”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21세기 복음 전도의 한 예로 요한복음 8:16을 자기 눈 밑에 쓰고 활약 중인 미식축구 선수 팀 티모 우의 스타일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의문을 던진다. 물론 그는 성실하고 모범직일 뿐 아니라 뛰어난 플레이어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스트랜드 교수는 기독교 대학은 복음 전도를 통한 개인의 구원은 물론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구속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골 1:20). 즉, 교회, 가정, 개인적인 삶, 정치, 비즈니스, 예술, 학교, 스포츠, 오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 사회사업, 비즈니스, 철학, 정치 등 모든 영역 및 분야를 통해 이 세상을 회복하며 비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학생들을 독자적이면서 변혁적 주체로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아가 그는 기독교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해 언급했다. 오스트랜드 교수는 세상 대학에 다니는 세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또한 첨단 기술의 도전을 언급하면서 과연 기독교 대학들이 기술에 의해 사용 당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Christiansen이 쓴 *The Innovative University*와 Debanco의 *Colleges: What It Was, Is, and Should Be*라는 책을 추천하면서 기술이 어떻게 우리 교사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 자동 진산화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캠퍼스에서 분별력 있는 신학 및 기술의 실천을 실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독교 대학의 교육이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교육과 신앙을 일치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루면서 James K. A. Smith의 *Desiring the Kingdom*과 James 및 David Smith의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s*를 추천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관념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천들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대학으로 현재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강의 평가 등을 통해 계속적인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강의실에서 다른 주제들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밝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동-코너스톤 간의 MOU 체결** 두 대학은 2011년 1월 28일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매 학기마다 최대 25명까지 교환 학생을 상호 방문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기를 다닐 수 있다. 교환 학생은 최소한 모교에서 1년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교수들 간의 교환도 가능하며 분과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정기적으로 상호 검토한다. 실제로 앞으로 학생들뿐 아니라 인력만을 보내는 교수들 간에도 활발히 교류하기로 합의하였다.

## Worldview Special 돈. 돈. 돈.

돈 문제, 돈 걱정, 돈 없이 살 수 없다면,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크리스천에게 돈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까?

크리스천 '돈'에 대해 말한다.

